

*for 2020*

문 학 후 련

set 2

문제 - 정답

보쌌 :)

reka21bo@naver.com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 위에 구름을 쫓아 달리던  
너와 나는 그날 꿈 많은 소년(少年)이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리었고  
㉠ 가벼운 날개 밑에 머-리 수평선(水平線)이 층계(層階)  
처럼 낮더라

자주 투기는 팔매는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은 단애(斷崖)의 허리에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오늘 ㉡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을 오르는  
두 놈의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고.

곰팡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너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

- 김기림, 「추억(追憶)」-

(나) 흰 나비가 소매도 걷지 않고

㉢ 봄비를 건너간다  
비를 맞으며 맞지 않으며

그 고요한 날갯짓에는  
보이지 않는 격렬함이 깃들어 있어  
날개를 둘러싼 고운 가루가  
천 배나 무거운 빗방울을 튕겨내고 있다  
모든 날개는 몸을 태우고 남은 재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면서도  
걸음이 가볍고 가벼운 저 사람  
슬픔을 물리치는 힘 고요해  
봄비 건너는 나비처럼 고요해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 그는 남몰래 가졌을까  
옷 한 벌, 흰 재로 지어진

-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다) I

시(詩)를 쓰는,  
이 아래층에서는 아낙네들이  
계(契)를 모은다  
목이 마려워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층층대는 아홉 칸,  
열에 하나가 부족한,  
발바닥으로  
지상(地上)에 하강(下降)한다.

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疾走)한다

달려도 달려도 열에  
하나가 부족한  
그것은  
골인 없는 백열경주(白熱競走).

III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면  
상층(上層)은  
공기가 희박했다.

- 박목월 「상하(上下)」-

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의 주된 대비 양상을 정리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대비’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거나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어서 시상 전개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 (가)~(다)에서도 이러한 대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비의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

- |          | (가)    | (나)    | (다) |
|----------|--------|--------|-----|
| ①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 ②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 ③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공간의 대비 |     |
| ④ 공간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
| ⑤ 공간의 대비 | 심상의 대비 | 시간의 대비 |     |

2.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시인이 (다)를 읽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나)와 (다)에서 우리는 현실적 어려움과 대면하며 시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나)에 드러난 어려움이 시 창작자로서의 고통에 해당한다면 (다)에는 이와 더불어 생활인으로서의 고통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는 시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성찰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다)의 화자가 물을 마시려 내려가는 모습은 ‘흰 나비’의 ‘고요한 날갯짓’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다)에서 지상에 하강 하는 화자의 모습은 ‘그’가 ‘비를 건너가면서 마른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 ③ (다)의 화자가 발바닥으로 생활을 질주 하고 나면 ‘흰 나비’와 같이 ‘몸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질 수 있을 거야.
- ④ (다)의 화자가 ‘골인 없는 백열경주’를 하는 모습에서 ‘슬픔을 물리 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⑤ (다)의 화자가 ‘열에 하나가 부족한 계단을 오르’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굴러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3. <보기> 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시간이 일직선상에서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간다고 보는 것과는 달리 신화적 시간관에서는 시간을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간 인식에 따르면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귀를 통해 인간은 현재적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 ① '언덕'이라는 동일한 배경은 '너와 나'가 '유년 시절'로 회귀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 ②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구나.'라는 표현에서 오늘이라는 현재적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 ③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게 된 것은 시간에 대한 인식이 신화적 시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 ④ 현재의 시간을 '노을'에 대응시켜 '아침'이었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것에서 인생에 대한 신화적 인식을 알 수 있다.
- ⑤ '꿈 많은 소년'이었던 '그날'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시간에 대한 신화적인 인식에서 비롯한 과거로의 회귀에 해당한다.

4.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 모순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 어순을 도치시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 인간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아버지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재혼해 독자인 '나'를 낳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귀향을 결심하고 '나'는 아버지의 귀향길에 동행한다. 아버지는 고향의 어느 보리밭 돌무더기를 삽으로 걷어내면서 자신이 6 25 전쟁 때 인민군의 편에 서서 동네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렸음을 털어놓는다.

행색이 마을 사람들인 듯싶은 세 사람의 남자가 그 돌다리를 건너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나는 묘한 예감으로 몸이 떨려움을 의식하면서 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날따라 마을을 지나는 인민군 패잔병도 없었고 (있어봤자 제까짓 것들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마는....) 구름 잔뜩 낀 하늘은 쉽게 어둠을 몰아왔다.

눈이 뒤집힌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에 부모처자의 얼굴은 한번 봐줘야 한다며 그를 안방 문 앞에 세웠다. 재갈이 물린 채 자기를 쳐다보는 집안 식구들의 그 처연한 눈빛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맥락이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예까지 끌려왔던 거다.”

아버지의 얼굴에 땀이 번질거렸다 구덩이는 이미 허리 높이만큼 깊어져 있었고 그는 삽질을 아주 조심조심 해 나갔다 징검다리를 건너 세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 이쪽 보리밭으로 오르는 계곡으로 접어든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린 재갈을 풀어주지 않더구나.”

그것만 풀어주면 목 놓아 영영 울고 싶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를 백 번 만 번이라도 외쳐 살고 싶었다. 난 사대 독자야. 내가 죽어선 안 돼- 그렇게 외쳐 그네들의 동정을 받고도 싶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물린 재갈을 풀지 않았다.

손 묶인 건 풀지! 누군가 그렇게 말했고 그는 행하니 입을 벌린 구덩이를 보았다 사람들은 그를 산 채로 밀어넣을 모양이었다. 그는 풀린 두 손을 들어 입에 물린 재갈을 벗기려고 했다. 그러나 완강한 팔목들이 그의 양어깨를 감싸고 있어 그것은 불가능했다.

빨리 쳐넣어! 손에 돌을 든 사람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필사의 힘을 다해 발버둥쳤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은 지연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덩이 속으로 누군가 풀썩 떨어져내렸다. 누구야? 놀란 목소리로 누군가 소리 질렀다 그러나 구덩이 속에선 얇은 신음 소리가 잠깐 들렸을 뿐이었다 한 사람이 성냥을 그었다 여자였다. 누군가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 엮어진 여자를 하늘을 향해 정면으로 누었다 얇은 흙저고리 하나인 그네 젓가슴 왼쪽에 칼이 꽂힌 채였다.

죽었어!

밑의 사내가 구덩이에서 기어오르며 말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리밭에 놓은 채 망연자실 구덩이 속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귀에 속삭였다.

이 몫쓸 것아! 네 처가 대신 죽은 거야.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왜 이러구 있어? 이 죽일 놈아! 어서! ……

아버지는 삽을 구덩이 밖으로 내던진 채 맨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다. 마을에서 올라온 세 사람이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는 기척도 모른 채.

한 사람은 탐골 박씨였고, 사십 전후가 돼 보이는 두 사람은 그 차림새로 보아 이 마을 사람이 분명한데 내게는 초면인 얼굴들이었다.

“이보게, 만배! 거 뭘 허구 있는 게여?”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다.

“자네, 이 사람들 얼굴 보면 모르겠나?”

이처럼 놀란 아버지의 얼굴 표정을 본 일이 없다.

“놀라긴, 자네 처남들이야!”

아버지가 말해 준 그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의 얼굴을 나는 곧바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빼앗아온 그 처녀의 남동생들은 나를 향해 조금 웃어 보였다.

“매형, 올라오세유!”

그들 형제는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누님은 우리 둘이서 몇 해 전에 탄 데다 모셨는걸유, 바로 저기…….”

그들 중의 하나가 우리들이 서 있는 보리밭 저쪽 좀 더 양지바르고 전망 좋은 데의 바로 그 무덤을 가리켜 보였다.

㉠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자네한테 하지 말라구 해서…….”

탐골 박 씨가 목덜미를 긁으며 속스럽게 웃자 그중 좀 연장인 듯싶은 쪽이,

“동네에서는 매형이 고향엘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곤 매형이 제일 먼저 와야 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와 가지곤 이렇게 매형 손으로 직접…….”

다시 탐골 박씨가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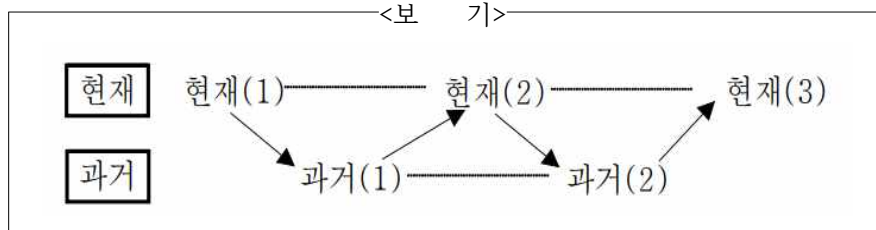
“글쎄 이 사람들 얘기로 자네가 여길 제일 먼저 와보지 않

음 자넨 이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했다지, 뭐가?”  
 나는 아버지가 파놓은 흙더미 위에서 발가락 사이로 비집고 올라오는 흙의 찬 촉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외삼촌뻘이 되는 두 사람은 최씨집 오대 독자인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들의 억센 손아귀에 손을 잡힌 채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귀향을 진정 반기고 있구나 - 생각했다. 나는 내 출생 비밀의 현장인 흙더미 위에서 땅의 찬 서기(瑞氣)가 심장까지 힘차게 뻗쳐오름을 감지했다.  
 - 전상국 「맥(脈)」-

5. 위 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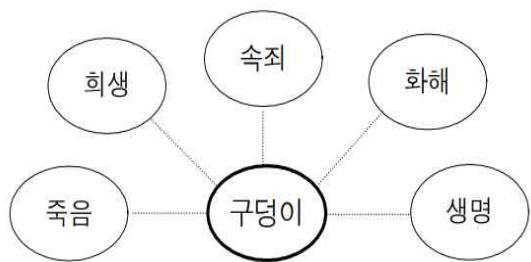
- ① ‘여자’는 ‘나’의 친어머니가 아니다.
- ②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은 ‘나’와 초면이다.
- ③ ‘완강한 팔목들’은 ‘아버지’를 끌고 간 사람들을 가리킨다.
- ④ ‘나’는 ‘탑골 박씨’를 통해 ‘아버지’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 ⑤ ‘세 사람의 남자’는 ‘김 구장의 두 아들들’과 ‘탑골 박씨’를 가리킨다.

6. 위 글의 시간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 (1) ~ (3)은 현재대로, 과거 (1)과 (2)는 과거대로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 ② 현재 (1)과 (2)에서는 ‘아버지’의 언행에 대한 서술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서술도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과거 (1)과 (2)에서는 서술의 주체를 현재와 달리하고 있다.
- ④ 과거 (2) 다음에 한 행을 뒀으로써 ‘나’와 ‘아버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⑤ 현재 (1), (2)와 과거 (1), (2)가 맞물리면서 현재 (3)의 사건이 갖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7. 위 글을 바탕으로 ‘구덩이’가 갖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다.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죽음 : ‘마을 사람들’이 파 놓은 구덩이는 ‘아버지’에게 죽음과 절망의 공간이었다.
- ② 희생 : ‘여자’의 희생으로 ‘아버지’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③ 속죄 : ‘아버지’는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흙을 파내는 ‘땀’의 노고를 통해 ‘나’의 속죄와 반성을 유도하고 있다.
- ④ 화해 : ‘김 구장의 두 아들들’이 구덩이 속의 ‘아버지’에게 내미는 손은 인물들 간의 화해를 의미한다.
- ⑤ 생명 : ‘구덩이’에서 파낸 ‘흙더미’에서 ‘나’는 ‘심장까지 힘차게 뻗쳐오’르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

8. 발화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 ‘……’에 생략되었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네를 거두고 싶어서 왔네.
- ② 미안하지만, 자네가 너무 과했구먼.
- ③ 말을 못했네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어쩔 수 없었네.
- ④ 말을 안 했네. 자네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
- ⑤ 말은 안 했네만, 그래도 자네가 괜한 일 한 것은 아니구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찬비는 국화에 어울리지 않게 내리고 寒雨不宜菊  
 (A) 작은 술동이는 사람 가까이 있구나 小尊知近人  
 문을 닫으니 붉은 잎 떨어지고 閉門紅葉落  
 시구를 얻으니 흰 머리 새롭구나 得句白頭新  
 정다운 벗 생각할 때는 즐겁다가 歡憶情親友  
 적막한 새벽 되니 시름 더하네 愁添寂寞晨  
 그 언제나 반가운 눈길 마주하고 何當靑眼對  
 크게 웃으며 양춘을 볼거나 陽春 一笑見陽春

- 박은, 「우중(雨中)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 택지: 박은의 친구 이행(李荇)을 가리킴

(나)  
 간 밤에 불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십(九十) 동군(冬軍)이 춘광(春光)을 자랑하듯  
 「미쁠손 천지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B) 나무 나무 잎이 피고 가지 가지 꽃이로다  
 방초(芳草)는 처처(處處)한데 춘풍 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어 보니  
 객창에 수지화(樹持花)는 웃는 듯 반기는 듯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낙양 성중에 저 봄빛 한가지요  
 고향 원상(園上)에 이 꽃이 피었는가  
 지난해 오늘날에 웃음 웃어 보던 꽃은  
 청준(淸樽)에 술을 붓고 꽃 꺾어 산(算)을 놓고  
 장진주(將進酒)노래하고 무진무진 먹자 할 제  
 내 번화(繁華)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날에 눈물 뿌려 볼 줄 알까  
 아침에 나쁜 밥이 저녁에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쏘냐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아마도 이 고생이 수유간(須臾間)의 꿈이로다  
 전년 꽃 올해 꽃이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人事)는 다르도다

- 안조원 「만연사」-

(다)

영숙(永叔)은 장수 집안의 후예다 그 선조 중에 나랏일로 죽은 충신이 있으니 지금도 사대부들은 그 일을 슬피 여긴다. 영숙은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를 잘 쓰고 옛일과 전거(典據)에 밝으며, 젊어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해 마침내 무과에 급제하였다. 비록 벼슬은 운세 때문에 막히고 말았지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뜻은 죽어선대의 위업을 이을 만하여 사대부들에게 부끄러울 게 없었다. 아! 영숙은 어찌하여 온 식솔을 이끌고 예맥(穢貊)의 땅으로 가려하는가?

전에 영숙은 나를 위해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봐 준 일이 있다 산은 깊고 길은 험해 종일 가 봐야 사람 하나 만날 수 없는 곳이었다. 영숙은 나와 함께 갈대밭 가운데 말을 세우고 채찍으로 높은 언덕배기를 이리저리 구획하며 이런 말을 했다.

“저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뽕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갈대에 불을 질러 밭을 일구면 해마다 좁쌀 천 석은 거둘 수 있겠습니다.”

시험 삼아 부시를 치자 바람 따라 불이 번졌다. 그러자 땀이 푸드득 놀라서 날고, 새끼 노루가 앞에서 튀었다. 영숙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그걸 쫓다가 시내에 막혀 돌아왔다. 이에 나를 보고 웃으며 이리 말했다.

“백년도 못 살 인생인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바위뿐인 곳에 살며 조밥 먹고 땀 토끼나 쫓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제 영숙이 기린협(麒麟峽)에 살겠다고 한다. 송아지를 업고 들어가 그걸 키워 농사를 짓겠다는 것이다. 그곳에 소금도 메주도 없어 아가리와 돌배로 장을 담가야 한단다. 그 험준하고 궁벽하기가 연암협보다 훨씬 심하니 어찌 같이 비교나 할 일인가. ㉞ 나는 갈림길에서 망설이며 거취를 정하지 못하고 있거늘 감히 떠나는 영숙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지언정 그의 곤궁함을 슬퍼하지 않으려다.

-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9. (가) ~ (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회고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가), (다)는 내면적 갈등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⑤ (가)~ (다)는 세속적인 삶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고 있다.
- ③ [A]와 [B]는 화자의 시선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A]는 반어, [B]는 비유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⑤ [A], [B]는 시각적 심상이 는 청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은은 강직하고 올곧은 성품을 가진 인물이다. 박은의 시에는 인생의 비애가 나타나 있으며, 잔뜩 찌푸린 우울한 풍경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 ① ‘찬비’를 맞는 ‘국화’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작은 술동이’는 ‘시름’과 관련하여 화자의 고뇌를 달래는 수단이겠군.
- ③ ‘문을 닫으니’는 세상을 대하는 강직하고 올곧은 화자의 성품과 관련이 있겠군.
- ④ ‘흰 머리 새롭구나’는 세속적 욕망을 초월하였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적막한 새벽’은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이겠군.

12.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 씻고’는 봄 풍경을 본 후 눈물짓는 모습으로 화자의 ‘고생 슬픔’을 짐작케 한다.
- ② ‘수지화’를 대하는 반가움을 의인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③ ‘고향 원상’은 ‘낙양 성중’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 ④ 지난날의 ‘웃음’은 오늘날의 ‘눈물’과 대비되어 화자의 처지가 부각되고 있다.
- ⑤ ‘꽃빛’과 ‘인사’가 대비되어 인간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가 혼례를 올리는 날, 임금은 지경에게 귀인 박씨의 딸 옹주와의 혼례를 하교한다. 이를 거부한 지경에게 임금은 위력으로 혼례를 강행하지만 지경은 옹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상(上)이 웃으시고 윤현에게 편지하사 옹주 고단함을 위로하라 하시고 최홍일에게 전교(傳敎)하사 가로되,

“당초에 네 딸을 다시 혼인시키지 못했으면서도 이제 방자히 지경을 맡고 있음은 분에 넘치니 이후 다시 이러한즉, 사죄를 당하리라.”

하시니 공이 황공 사죄하고 윤공이 지경을 몹시 꾸짖으며 옹주 궁에 보내어 여러 날을 지키고 최공이 의견을 내어 윤공더러 이르되,

“최씨 병들어 낫지 않는다.”

하더니 여러 날이 됴에 위중타 하는지라 지경이 듣고 즉시 가니 최공이 크게 노하여 가로되,

㉞ “네 또 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 딸이 병들어 죽으나 산나 네 알 바가 아니다.”

하고 밀어내어 문을 닫으니 웃으며 쫓겨 밖에 나와 조카더러 물으니 고모의 병이 중하여 곡기를 끊고 눈을 뜨지 못한다 하거늘 그 말을 듣고 크게 슬퍼 가만히 들어가고자 하되 정당(正堂)에 누웠다 하는지라 볼 길 없어 돌아와 편지하니, 답장도 없어 주야 번뇌하더니 하루는 윤공이 가로되,

“최씨 병을 보니 너로 인하여 신세 참담함을 슬퍼하여 병이

난죽 아마도 살지 못할까 싶더라. 그런 잔인한 일이 어디 있으랴.”

지경이 묵연히 퇴하니, 이윽고 최씨 부음이 와 일가가 통곡하고 지경이 실정 통곡하여 엎어져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깨어 일어나 말을 타고 바삐 들어가더라. 최공이 하인을 명하여 문에 들이지 말라 하고 윤공과 다른 사람들은 들이니 지경이 뒤를 쫓아 들어가려 한즉, 여러 하인이 등을 밀어내고 문을 닫으며 이르되,

㉔ “주인께서 가라사대 내 딸이 구태여 저와 혼인 아니하려 하거늘 우격으로 혼인을 지내고 내 딸이 저로 인하여 죽었으니 붙이지 말라 하시더이다.”

지경이 노하여,

“내 미워함이 아니야 사세 그렇게 되었거늘 어찌 그 (事勢) 토록 험하게 구는고.”

백 가지로 들어가려 하되 마침내 들지 못하고, 안에서 곡성이 진동하니 절로 눈물이 비 오듯 하여 하인청에서 지내더라. 이튿날 또 갔으나 한결 같이 들이지 아니하니, 하릴없어 혈소청 (歇所廳)에서 성복(成服)하고 돌아와 부형을 대하여 최가의 일이 괴이함을 고하니, 공이 가로되,

㉕ “나와 다른 사람들은 들이되 너를 아니 들이기는 상사에 조관 재상이 많이 모이매 너를 거절함을 보임일러라.”

지경이 가로되,

“그건 너무 과도하나이다. 이미 죽은 후 무슨 시비 있을 것이라 그리하리이까, 최공의 바란 것이 병일러니. 이 일을 보건대 오히려 작심이로소이다.”

지경이 몹시 서러워하여 병이 나 누웠으나 잠깐 진정하여 낫거늘, 최부에 이르니 이날에야 들이더라. 바삐 빈소에 들어가 관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다가 기운이 막히니 부인과 한림이 겨우 진정케 하고 서로 참담함을 인사하고 비통하다가, 차후로 옹주 박대 더욱 심하더라. 옹주와 박씨는 최씨 죽은 것을 가장 기꺼워하고, 상은 들으시고 병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알으나, 최공을 불러 전일 엄책하심을 뉘우치시니, 최공이 감은하여 지경 속임을 던지시 아뢰며, 귀인께도 이같이 청하니 기꺼워 웃으시더라.

세월이 덧없어 장례를 치르게 되니 지경이 더욱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가(自家) 선산에 묻기를 청하니 최공이 가로되,

“이미 나라에서 이리하여 계시니 어찌 네 집 선산에 가리요. 부질없이 유의 말라.”

지경이 더욱 설워하는 중 옹주 박대 갈수록 심하여 측량치 못할러라.

광음이 여류하여 최씨 일주기(一週忌) 돌아오매 심사가 더욱 비감함을 이기지 못하여 조카 등을 데리고 글도 가르치며 이르다가 입번(入番)하는 날은 대군(大君)도 글을 가르치니, 대군은 명묘(明廟)시니 공경하고 사랑하시더라.

㉖ 박씨는 지경이 미워 바로 보지 아니하니 지경 또한 바로 보는 적이 없더라.

이러구러 최씨 삼년상이 지나니 지경이 설움을 이기지 못하여 최부에 가 침소 밖에 이르러 배회하며 혼잣말로 이르되,

‘종적은 의구하되 사람이 없으니 이 설움을 어찌 견디리요.’

두루 생각하니 심회 비감함을 정치 못하여 눈물이 한삼을 적시는지라. 옹주는 갈수록 싫고 최씨는 오랏수록 잇을 길 없으니 이십 세 남자가 일생 홀아비로 어이 견디리오.

자연 신세를 비탄하니 최공의 손자 선중이 나이 십 세라, 따라다니다가 이 거동을 보고 물어 가로되,

“숙부는 어찌 이대도록 우시나이까.”

지경이 답하여 가로되,

“네 고모를 생각하고 우노라.”

선중이 가로되,

“고운 부채와 필묵을 주면 고모 있는 곳을 아니 이르리이까.”

지경이 가로되,

“죽은 사람 간 곳을 네 어이 아는가.”

선중이 가로되,

㉗ “조부께서 숙부가 매양 본다 하고 죄다 감추었나이다.”

지경이 마음속으로 뜻밖의 일에 몹시 기뻐하여 즉시 종을 보내어 색부채와 필묵을 갖다가 주고 달래어 물으니 선중이 가로되,

“나를 따라오소서.”

뒤를 따라가니, 동산 너머 두 집 지나 큰 집이 있어 대문을 잠갔거늘 동산 협문으로 들어가니 최씨 바야흐로 종을 시켜 보거늘 지경이 바로 들어가 부인을 붙들고 가로되,

㉘ “이 어인 일고 당명황(唐明皇)의 봉래산(蓬萊山)꿈 \*인가, 초양왕(楚讓王)의 무산(巫山)구름\*인가.”

최씨 역시 몹시 놀라며 감탄하여 눈물이 샘솟듯 하니 모든 시비 이 거동을 보고 슬퍼 아니하는 이 없더라.

- 작자미상 「 윤지경전 」-

\* 당명황의 봉래산 꿈 : 당 현종이 죽은 양귀비를 보고 싶어 했다는 고사.

\* 초양왕의 무산 구름 : 초양왕이 무산의 선녀를 보고 싶어 했다는 고사.

13.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 1 ] 점

- ① 옹주는 자신의 질투로 최씨가 죽음에 이르자 이를 후회하고 있다.
- ② 최공이 마련한 계책은 박씨와 미리 계획하여 면밀하게 준비된 것이다.
- ③ 임금은 최씨의 장례가 끝난 후 지경을 옹주와 맺어주기 위해 최공을 불렀다.
- ④ 윤공은 최씨의 장례에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보인 지경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지경은 최씨의 묘를 자신의 선산에 마련하고자 했으나 최공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

14. ㉔ ~ 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단호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㉕ : 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고 있다.
- ③ ㉖ : 정황을 들어 상대가 의아하게 생각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④ ㉗ : 예상치 못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대를 놀라게 하고 있다.
- ⑤ ㉘ : 고사를 인용하여 상대를 만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15.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개가 있었다. 어느 날, 개루왕이 도미를 불러 그의 아내도 남몰래 꺾면 마음이 움직일 것이라고 하자, 도미는 자신의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왕은 신하를 자신처럼 꾸며 그의 아내에게 보내, 도미가 내기에 저 자신의 후궁이 되어야 한다고 속이자 그녀는 몸종을 단장시켜 보내 이를 모면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왕은 도미를 멀리 보내버리고 그녀를 취하려 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궁을 탈출했다. 강가에 도착한 그녀가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자 조각배가 나타났다. 배가 천성도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극적으로 만난 두 사람은 고구려에 가서 살았다.

- ① <보기>의 '도미'와 달리 위 글의 '지경'은 '최씨'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시련을 당하는 인물이군.
- ② <보기>의 '신하'에 비해 위 글의 '최공'은 임금을 의식하여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이별하게 하고 있군.
- ③ 위 글의 '최씨'와 달리 <보기>의 '아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인물이군.
- ④ 위 글의 '선중'과 <보기>의 '하늘'은 모두 주인공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군.
- ⑤ 위 글의 상(上)과 달리 <보기>의 '개루왕'은 계책을 직접 마련하여 주인공들에게 시련을 주는 인물이군.

16. '지경'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박씨와 ( )이므로 서로 마주 대할 일이 없습니다.”

- ① 막역지간(莫逆之間)
-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③ 견원지간(犬猿之間)
-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 ⑤ 관포지교(管鮑之交)

[1~4] 김기림 「추억(追憶), 나희덕 「재로 지어진 옷,  
박목월 「상하(上下)」

1. ①
2. ⑤
3. ③
4. ⑤

[5~8] 전상국 「맥(脈)」 -

5. ④
6. ④
7. ③
8. ⑤

[9~12] 박은 「우중(雨中) 에 택지(擇之)\*를 생각하며」,  
안조원 「만언사」, 박지원 「기린협으로 들어가는  
백영숙에게 주는 서」

9. ③
10. ①
11. ④
12. ①

[13~16] 작자미상 「윤지경전」

13. ⑤
14. ②
15. ①
16. ③